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41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6. 1. 30(금) 14:00 ~ 17:49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제41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 기획조정팀 권용민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지금 11인 중에서 9인이 대면으로 참석하셨고, 성기숙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총 10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아르코미술관 사업계획(안), 2026년 문호예술후원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공모계획(안), 2026년 청년예술도약지원 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 국제콩쿠르세계연맹 협력사업 운영계획(안),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기본계획(안),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본계획(안), 2026~203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 2026년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 기본계획 등 의결안건 10건과 2026년 문예기금 정책성 재교부 사업 운영·관리 주체 변경 보고 등 보고안건 4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12월 26일에 개최한 제410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되어서 모두 원안의결 되었고요. 지난 1월 6일에 개최한 411차 서면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서 역시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68호 2026년 아르코미술관 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아르코미술관 사업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봐주시면 아르코미술관 연간 사업의 총 투자계획은 41억입니다. 아르코미술관의 시설관리 운영과 전시, 프로그램 등 운영에 22억 3,700만 원.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전시 쪽에 14억 6,300만 원. 그리고 아르코예술창작실에 4억 원 등 이상 41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사업의 방향 그리고 사업의 구성 등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미술관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은 기관의 비전 전략과 시각예술 분야 지원 방향과 연계해서 한국 시각예술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코미술관이 계속 가지고 왔던 실험성과 대안성. 이 실험성과 대안성은 우리 기관의 시각예술 분야 창작산실 등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같은 전략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국제성입니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이라든가 예술창작실 운영 등 한국 미술을 국제화하는 방향성과 연계해서 아르코미술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요 사업은 표에 있는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시입니다.
2025년도에 6개 전시 그리고 플러스5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5는 미술관 1층에 있는 작은 다목적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전시입니다. 소규모 전시까지 포함했을 때는 11개 전시를 했고요. 연도 중반에 기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는 6개 기본적인 전시를 유지하고 연도 중반에 기획하는 전시도 추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변화가 있다면 건축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례화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건축전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전이 없는 해에는 건축 주제 전시를 신설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새로 추진했던 지역예술도약사업의 성과전, 아르코 리프 전시를 2026년도에는 공동개최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조사는 포트폴리오를 576명의 작가 5,749건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작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작가의 방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 한 해 아르코미술관의 중점 방향 중에 하나가 관객을 획기적으로 늘려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시로만 시각예술을 접하는 일반관객들이 많이 있고, 직접 우리는 작가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제 작가님을 초대해서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사 기능과 관객 개발 기능을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 작품의 경우는 423점을 보유하고 있고, 수장고에 297점 그리고 외부 대여에 126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수 조사했고요.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는 5점 보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의 전시 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소장작품전을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관객 개발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부터 2025년 4년간 현장 방문과 온라인 관객 모두 점진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획기적으로 관객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가를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계속해 왔던 예술로 소풍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미술주간에 개최하는 아르코데이를 유지하고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을 대비해서 건축계의 담론과 네트워킹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가들이 예술로 접근하고, 예술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건축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대학로의 장소성을 해석하고 건축프로젝트를 하는 2개의 트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전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장기 후원 합의를 이끌어내서 미술전에는 매해 4억 원을 향후 10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아직 검토 중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후원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실은 전년도에 이어서 사단법인 자문밖문화포럼과 협력해서 큰 기조는 바꾸지 않고 각각 기수별로 5명. 국내 2명, 외국인 3명 등 5명의 기수별로 유지를 하되 현장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개선 의견을 받아봤을 때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간 여건의 적합도를 중시해서 작가를 선발하고 작가들이 협력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4월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 장인 8페이지 제일 위에 전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방향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관의 시각예술 지원사업들과 연계성, 국제성 등 큰 키워드를 가지고 창작실 성과 지원. 그리고 건축전, 귀국전 그리고 다원예술 창작주체 지원 연계전. 그리고 인사미술공간의 아카이브와 신진작가, 청년도약지원사업 연계전. 그리고 아르코미술관 소장품전. 그리고 지역작가 초청 전시 등의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발표 내용 중에 건축비엔날레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된 기획전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귀국전을 하는데 저희가 신설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관객 개발을 하시는데 관객 개발을 작가의 포트폴리오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르코에 젊은 작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좋은 아카이빙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견작가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결합 되어 관객 개발을 한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바운드레지던시를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보았고 잠재력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각예술 쪽의 생태계 연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국내 작가들이 해

외에서 큰 전시를 하거나 할 때는 카탈로그 레조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좋은 평론가의 글을 받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외국에 있는 기획자나 좋은 평론가에게 작가와 관련된 글을 받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의 인바운드레지던시에 해외작가 이외에 기획자나 평론가를 좀 적극적으로 풀을 넓힌다고 하면, 기왕 우리에게 왔을 때 많은 작가들과 전시들을 보게 해 준다면 자연적으로 네트워크의 풀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아프나 아주 특정한 기간에 너무나 바쁜데 아주 짧은 일정에 막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별도의 틀을 조금 더 활용해서 해외의 기획자나 평론가를 초대하거나 공모해서 오시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넓혔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게 저희 문예위에서 하는 레지던시가 다른 미술관이나 재단에서 하는 레지던시와 차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올해 전시 관련해서 제가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장품전을 하신다고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여쭤봤을 때 이 소장품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전수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전시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방향은 되게 좋은데요. 보통 미술관이나 미술계에서 소장품전은 그 기관이 비수기 때 할 게 없을 때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소장품전이라는 말을 안 쓰기를 제안드리고요. 이것이 오랜 연구와 전수조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주제기획전. 그리고 왜 올해 이것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붙여서 주제 기획전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시 중에서 아르코미술관이 다른 미술관과 차이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공모지원사업과의 연계점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올해 전시에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모지원사업 또는 지원작가의 전시와 아르코미술관이 연계되는 것은 좋지만 그게 기획전이든 개인전이든 정점에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도 지원해야 하니까 청년연계사업도 넣고, 지역도 하니까 지역사업도 넣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르코미술관 자체가 미술계에서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관장님 공석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문예위의 아르코미술관이 미술계에서 다른 미술관과 어떤 식으로 차별화 되거나, 여기는 담론을 얘기하는 장소가 되거나 아니면 평소에 보기 어려운 작가의 전시를 보는 장소. 전시를 하면 모두와 보고 싶은 전시를 만들거나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르코미술관 1년 운영예산을 보시면 20억이 조금 넘잖아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22억 3,700만 원입니다.

김미라 위원 : “1년 예산이 전시와 운영을 다 했는데 너무나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대문DDP나 서울시에서 하는 한 달간의 전시 예산이 28억에서 30억입니다. 단일 행사 하나가요. 그런데 미술관이 이 예산을 갖고 인력도 운영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보면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미술관의 위상을 높이려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술관의 예

산증액 필요성과 미술관이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 또는 토론, 소그룹 연구 등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물어볼게요. 여기 운영자문위원회가 있고 전문가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요. 분야는 동일한데 각각 4~5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담위원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나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로 저희가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저희가 내부에서 전문가들을 조사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김미라 위원 : 사실은 관장님이 계실 때는 관장님의 미술관 독자성에 대한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도 미술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정갑영 위원 : 관장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스템 체계를 보면 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이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퍼블릭프로그램?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퍼블릭이라고 하면 일반 관객들을 위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관객 개발 상설 및 기획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억이네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가 있을 때 전시와 연계한 특별한 도슨트 프로그램이나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열림 같은 다목적 공간을 이용한 시민 관객 워크숍이나 참여프로그램을 통칭해서 퍼블릭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세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

이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1억으로 해서 통으로 잡아놓은 것은 설명이 잘 안된다는 거죠.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에 있고 8쪽에 있는 것처럼 공간열림에서 벌어지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전시 연계 도슨트 등의 프로그램이고요. 각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는 기본계획이라서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지금 1억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추가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한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작가의 방이라는 상설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관객과 접점을 가지는 작가가 월별 1인씩 초청이 돼서 공간열림에서 작가를 위한 포트폴리오와 만남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것 말고 전시와 관객이 워크숍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서 총 1억이 된다고 해야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미라 위원 : 예를 들면 "1개의 행사 당 얼마를 잡았는데 곱하기를 하니까 얼마더라"라는 기술이 없으니까요.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맞습니다. 산출 근거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엉성해요. 언제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하나도 없이 그냥 1억이 든다고 해 놓으면 예산의 짜임새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저희는 기본계획이라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다고 생각했고요. 세부계획들은 별도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정갑영 위원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세부 계획이 잡히고 총괄이 잡히는 것이지 총괄을 얼마로 잡아놓고 그다음 이것에 맞게 세부를 잡는다고 하면 일의 진행 방식이 짜임새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저희가 세부 계획까지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작가의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프로그램이라서 연말 연초 세부 계획들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억이라는 게 연중 전체의 관객개발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은 충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미술관 운영 자문회의라는 것은 매년 하는 거죠?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자문을 주시는 방향이 조금 전에 김미라 위원님께서도 고민해 주신 아르코미술관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아르코미술관에 대해서 시각예술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장 많이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보고드리고요. 그러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회 보고 전에 많은 세부 프로그램 풀들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김진각 위원 : 아르코미술관은 기본적으로 공공미술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르코극장과 다르게 아르코라는 조직이 미술관도 갖고 있다는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도 있지만 전시 환경을 보면 "과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나?" 이 공간이 과연 미술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 답도 없고 계속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술관 자문 운영회의가 있지만 짚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존재감이 떨어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술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처를 해야 되고 공공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의 미술관이라고 하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아르코미술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예술창작실을 운영하는데 김미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전반기 5명과 후반기 5명으로 하잖아요. 그 중에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큐레이터나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할 공간만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그래도 좀 나와서.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지난번에 1기와 2기 간담회에서 개선했으면 좋은 게 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커뮤니티룸이 없다" 하나는 커뮤니티룸으로 만들고 기획자나 큐레이터가 올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한 거처를 플러스해서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해 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장품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은 별도의 컬렉션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미술관 기능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획해서 미술대전을 했을 때 전시되었던 작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주제를 과거로 해서 “아르코가 어떻게 해 왔는가?” 이런 쪽으로 하면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진각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에도 한 번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아르코미술관으로서만의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다른 일반 미술관, 국·공립미술관과 같이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문체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각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의 일환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간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연계성으로 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기획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촌 장관 때 통폐합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 미술관이 없을 경우에 현장에서 엄청난 애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전에는 기획전 중심으로 거의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전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운영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을 찾기가 더 어렵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자문위원들이 있고 전문가 토론을 한다든지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의 정체성을 더 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 발언이 끝나고 오늘 현장에서 대면으로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정보가 없어서요. 이따가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르코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 차별성.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체부에서 지난해 미술관뿐만 아니라 서초동에 있는 아르코예술자료관 그리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문체부 산하기관과 소속기관의 구조 조정 내지는 통폐합이 논의되다가 중단이 된 사안이고 현장예술인들 간담회, 포럼도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코미술관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모호한 가운데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문예위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르코미술관이 기존의 미술관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면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지속가능한 존재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작년 전체회의 때도 언급이 되었거든요. 되었다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운영 관련 아쉬움과 지적도 중요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 우리 문예위에서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정체성 찾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7쪽을 보면 주요 경과에서 국회에서 2025년 12월에 국회 승인이 되었고요. 2026년 문체부 승인이 2026년 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이 1월 31일인데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안건이 의결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체부 승인이 1월 예정인데 오늘이 1월 31일인데요.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이 부분은 국회 승인.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기획조정팀장이 보고해 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문체부에서 하지만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사업 승인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 승인 이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관운영비에 해당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 승인이 필수사항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승인 없이 국회 승인으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는 모든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성기숙 위원 : 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1월 30일이라서 어떻게 되었나 여쭤본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이 사업비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면으로 참석한 위원님들 좀 알려주시죠.

정병국 위원장 : 예. 구문모 위원님 한 분만 참석을 안 하고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성기숙 위원 : 누구요?

정병국 위원장 : 구문모 위원님이요.

성기숙 위원 : 구문모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시고 온라인 참석은 저 혼자네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69호 2026년 문화예술후원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안건번호 1169호 문화예술후원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년도 개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저희 후원활성화사업 예산은 21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조건부 기부금이 대부분인 11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기부금(지정기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입과 연동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연도 중반에 수요가 늘어나면 더 증액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약 140억 정도였고 올해도 약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후원활성화지원 75억. 그 외에 예술나무운동이 25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예술가의집 운영이 3억 5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는 작년도 추진 성과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만 2,00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요. 2024년 처음 시작한 꿈밭펀딩을 작년에 '연극내일기금', '케이아츠펀드'로 해서 조금 더 모금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역후원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해피엔딩' 공연으로 저희가 잘 마무리 했고 가치확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올해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26년도 주요 추진 전략은 하단 표에 보시면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예술 후원에 대한 인식확산 그리고 대중 후원 및 고액 후원으로 구성되는 모금과 지출. 그리고 지역 중심 동반 성장. 그리고 후원 매개와 관련한 후원 총량 확대 등 3가지 큰 영역이고요. 영역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은 올해 추진하게 되면 4회차가 되겠습니다. 단순 후원 참여를 넘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인식을 전환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총예산은 약 7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대중후원 관련은 꿈밭펀딩, 연극내일기금, 케이아츠펀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잡은 모금 상품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 관리시스템이라든가 관련한 홈페이지 개설 혹은 후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중점 추진하고자 하고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저희 예술후원인의 밤은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서 연중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코아츠소사이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다양한 행사, 저희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그리고 외부와 협력해서 다양한 혜택을 드리면서 이런 예술 애호 문화가 후원 문화로 선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2025년도에 신규로 추진했던 지역 중심 예술기업 동반 성장 지원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 지역예술단체, 지역문화재단의 3자간 후원에 대한 시상 지급으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그 유형은 유형2의 시상제도로 유지를 하면서 올해는 유형1을 추가하려고 합

니다. 유형1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해서 기업후원금에 추가 매칭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예술과 기업 결연지원이라든가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메세나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하시는 경우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서 2배의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내의 기업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형1과 작년과 유사한 유형2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런 후원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재단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개 역량과 관련한 매개 교육사업을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올해 예산은 41억 원이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와 협력해서 보다 성과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39페이지 기업과 예술의 만남 지원은 한국메세나협회에 교부해서 재교부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예술지원 매칭펀드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가면서 결연 240건, 기업후원금 36억 5,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메세나. 지금 제주메세나, 경남메세나 등 지역메세나가 있는데요. 지역메세나 확산 사업 그리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로 인사합시다.'입니다.
예전 문화접대비 현 문화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각종 캠페인 사업이고요. 예산은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후원매개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후원 우수기관 인증 및 매개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기관 65개, 매개단체 15개 총 80개 단체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에서 그냥 참고를 하실 부분은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시상이나 지정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일단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제인협회 등과 협력해서 인증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억 8,4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는 저희가 후원매개를 인증하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조사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매칭지원이나 다양한 저희 후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 단체, 지역문화재단, 기업의 교육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올해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상단에 2024년에 실시한 기업문화재단 기여도 진단 고도화도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조건부기부금 및 예술단체정기후원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간에서 개인, 기업 등 기부자와 예술가단체 사이에서 다양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지출, 정산 프로세스를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소요 예산은 114억입니다만 중간에 기부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 하단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텀블벅, 알라딘 북펀드, 오마이컴퍼니로 1년에 100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술단체가 스스로 펀딩을 진행하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47페이지 저희 예술후원홍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가의집은 지금 리모델링을 한 지가 3년차를 맞아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대관도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예산은 3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 아마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의 예산을 보면 운영 용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트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7억 4,000만 원,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 예술나무 같은 경우에는 2억, 후원매개인력양성조사위탁은 1억 9,50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전체회의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전혀 모르고 이런 사업들은 일년내내 진행되고 저희가 방문을 하면하고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고 극히 일부분이기는한데 용역 비슷한 것이 나갔을 때 이것들의 선정 과정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가 나게 정말 잘하나? 관리를 어떻게 하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페스티벌 같은 경우 작년 제 기억으로는 5억 정도를 써서 1억 정도를 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3일을 하셨다고 하고 예산이 늘어서 7억 정도를 썼다고 알고 있는데 수입은 여전히 1억 정도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행사들의 효용성.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과연 효과를 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대했는지? 그 수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드는 돈이 아무리 많고 수입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 행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아닙니다.”를 얘기할 텐데요. 그냥 단순 숫자만 주시고 이 계획을 설정하신 쪽에서의 목표 수치는 전혀 주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 행사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운영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각 행사들의 목표 가치가 뭐냐?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저희 예술후원홍보센터가 아무래도 기획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용역 비중이 높아 보이는데요. 용역사업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술후원홍보센터 사업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전부터 사후까지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업의 투입 대비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가장 모니터링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1회 공연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게 너무 1회성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3회차로 늘려서 관객 쪽으로 저희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를 보시면 모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관객은 75% 이상 늘릴 수 있었고요. 관람객의 만족도도 77점에서 86점대로 향상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가치 확산에 비중을 주자. 그래서 올해는 후원 모금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가치 확산과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면서 행사도 그렇게 구성하고 이런 행사의 성과를 조금 인덱스화 해서 후원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김미라 위원 : 아까 운영 용역을 조달을 통해서 공모하시고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저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동일한데요. 내부 부서장도 포함되겠지만 외부전문가들로, 용역 금액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이 용역심사위원회.

김미라 위원 : 전문가는 조달청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공모를 하시나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부서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김미라 위원 : 부서에서 그냥 모셔서 평가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지원에서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있잖아요. 추진 방향에 지원 소외 장르 및 장애 예술단체 지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원 우대가 올해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체 지원 우대에서 단체의 기준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단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식은 예술단체와 메세나가 매칭 하는 그런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지금 소외 장르나 장애단체 지원 우대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세나협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우대사항을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적용하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별도로,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것을 명확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소, 중견으로 요건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리고 단체의 기준. 이렇게 매칭하는 장애예술단체나 소외 단체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의 기준이 되는 자격요건이 뭔가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자격요건은 위원회 기금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단체가 예술과 관련된 단체인지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은주 위원 :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건가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후원센터 직원 몇 분이 하세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홍보가 4명이고요. 그 외 10명이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업무를 보면 용역으로 나간 것을 관리하는 일 중심으로 직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도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저희 예산이 200억이 넘다 보니까 용역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기부금을 관리하는 일 등 행사 외에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으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대부분 용역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용역을 주고 관리하나 보다”라는 인상을 준다는 말이죠.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홍보학술연구 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와서 사인을 해 달라는 것인가?”라고 밖에 안 들립니다. 안 그래도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향후, 지금 8기는 간다고 치지만 향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편성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을 들어야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남아 계실 3인과 새로 오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문화재단 직원들과 해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조사연구가 있잖아요.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매개인력양성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직원들이 한 번씩 들었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행적으로 매해 하던 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효과가 뭔지?”, “왜 있는지?”, “매개 인력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과가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알 수도 없고 예산이 얼마 들어서 하니까 내년에도 또

하고요. 센터장이 바뀌어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병국 위원장 : 매개 인력 양성은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갑영 위원 : 내 얘기는 한번 타깃이 되어서 특별한 요원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되는데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정병국 위원장 : 계속 양성해서 배출.

정갑영 위원 :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사례로 얘기하니까요. 어떤 지역문화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수십 년 해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모든 국민이 다 들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관행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술위 자체의 위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말씀하신 대로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용역은 저희가 매년 하면서 기본적인 투입 물량이나 필요한 산출물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하게 되고요. 사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 했던 용역을 조금 더 개선해서.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요. 매개인력을 교육시켜서 배출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으며, 매개 인력이 그렇게 계속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이 제도의 효용성.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후원 활성화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활용되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매개인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6년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부분을 민간의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취·창업 경로로 해서 설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오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창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이런 부분 이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가 현직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20% 정도는 취·창업이 안 된 실적도 있어서 저희가 2026년도 개선 사항으로는 지역문화재단이나 기업이라든가 CMS 예술단체라든가 저희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재교육 차원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개선 사항으로 했던 것은 기존 수료생들 중에 4명 정도를 아르코아트너스라고 해서 저희 후원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동반성장지원 사업에서 인구 감소 소멸

지역에 내려가셔서 기업과 예술단체를 연결해 주는 컨설팅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타깃팅 해서 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의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하시는지요? 어떤 경우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어떤 사업?

왕치선 위원 : 예를 들어서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같은 경우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왔다.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성과는 적었다. 이런 데이터가 작년 것과 올해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몹시 인원이 늘었으니 우리는 성과가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입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업을 종료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성과를 어떤 것으로 보고 결정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많은 사업들이 그렇듯이 계획을 세우면서 성과지표나 목표를 관리하게 되고요. 사업을 저희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서 외부적으로 지적이 되었을 때 종료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처음부터 아트포레스트뮤직페스티벌은 지속해 가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3년 전에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특별행사로 기획을 하면서 할 때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그러니까 향유적 차원에서 대거 해 보자고 했는데요. 그해만 하려고 했는데 그 뒤의 평가가 "이것은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술가치확산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향유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했으면 하는 실무진의 의견, 현장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후원을 활성화하는데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른 후원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후원을 이 정도밖에 안 받는데, 투입 대비 아웃풋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런 다른 시너지효과 때문에 어차피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 다양한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 오게 된 것입니다.

왕치선 위원 : 저는 "이것을 해라, 말아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평가의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도 아니고요. 본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돈을 더 쓰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나,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니라면 아무리 관람 인원이 늘어도 "그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KBS의 열린음악회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각각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했다는 게 명백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성기숙 위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후원홍보센터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꼼꼼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일단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의견 내지 질의인데요.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용역업체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2025년에 제가 문예위 사무처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제공된 자료를 보면 문예위에서 용역업체에 연간 주는 게 120건 업체와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체회의에서 문예위의 용역업체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문예위 사업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정말로 용역업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은 예술지원 심의와 관련한, 특히 전담심의제 관련 심의의 평가모니터링, 인터뷰도 있는데요. 진짜 보안이 필요한 예술지원 심의와 관련된 것도 용역업체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했거든요. 저희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응하는 예술가들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용역업체 활용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와서 저도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예술후원센터에서 예술가의집 3억 5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요새 주차장 개선으로 바닥공사도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술가의집이 작지만 대관료나 라운지에서 차와 커피를 판매하잖아요. 그 수익금. 주차장도 주차료를 받는데 주차장 수익금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르코대극장과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의 대극장과 소극장에 대한 대관료도 사실은 궁금한데요. 후원센터 담당이 아니라서 예술가의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가능해 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부터 예술과 기업의 만남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후원센터의 업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후원하는 기업의 만족도는 어쩐 지에 대해 소통이 있거나 체크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2026년도 목표치를 보면 기업과의 결연 40건, 기업후원금으로 23억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예술지원매칭펀드도 결연을 240건, 기업후원금도 36억 5,000만 원의 유치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요. 유치 설정을 한 근거. 유치 목표 설정의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이게 실현가능할지? 사무처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목하는 게 지역메세나 확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문화예술 환경이나 지형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역문화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역문화진흥원도 설립이 되었고요. 지자체에도 지역문화재단이 다 있는데 우리 문예위가 지역과 관련된 지역메세나 확산 사업도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사업 설계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전국 단위의 민간예술후원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듣는 기회를 가져도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시설과 관련해서 공간에 대한 임대료 또는 주차료와 아르코라운지 운영비는 상관이 없고요. 아르코라운지 운영비는 아르코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별들의 서곡이라고 해서 젊은 예술가들이 무대를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한 달에 2차례씩 하는 것을 아르코라운지 운영비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올라온 수입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문예진흥기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계획안에 기타수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경영기획본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말씀하신 건물대여료는 자체수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건물대여료는 총 9억 원 정도 수입이 있고 대부분 예술극장에서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8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 예술가의집에서는 연간 8,000만 원 정도의 대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모든 사업에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예산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사업계획(안)을 보고할 때는 사업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적시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늘 그렇게 되다 보면 의례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처장께서 별도로 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안을 의결 받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사업별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성기숙 위원 : 제가 질문한 것이 답변은 안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관계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70호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공모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다은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조금 더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해 주세요.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하면 저녁 이후까지 해야 하는데요. 빨리빨리 보고해 주세요.

장다은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50페이지를 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2025년에 시작된 사업이고 2026년에 2년차로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달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돼서 시각 분야만 올해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재단과 우리 예술위원회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작가들을 지역문화재단에서 발굴·추천을 저희 예술위원회로 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권역별로 1명씩 작가를 뽑아서 서울에서 좋은 개인전으로 선보이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달리 작가 풀의 확대를 위해서 광역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립미술관에서도 작가의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은 지방비 매칭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광역문화재단에서 작가를 추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작가에 대한 창작사례비를 함께 매칭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번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는 총 10억 원의 예산 중에 9억 원을 민간경상비로 쓸 예정인데요. 크게 작가를 지원하고 이 작가가 개인전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하는 제작지원단으로 예산이 분리돼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작가는 총 17개 광역 중에 수도권 3군데를 제외한 14명을 위해서 한 작가당 최대 4,000만 원 규모로 총 5억 6,000만 원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작지원단에는 3억 1,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업예산 하단에 작은 별표 문구를 봐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광역문화재단에서 작가를 추천할 때 별도의 추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예술위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비용을 2,100만 원 내외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재단과 미술관으로부터 작가 추천 신청접수는 3월 23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중에 심의를 진행하고 5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시는 연말에, 11월과 12월에 저희 아르코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특이 사항 중 하나는 '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역에서 서울로의 도약이 아니라 중앙에서 해외로의 도약이라는 부분까지 올해는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진행했던 작가들의 전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가는 한 분 정도 선정해서 해외 전시로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돈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1171호 2026년 예비예술인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비예술인지원사업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는 총 40건을 결정했습니다. 40건을 결정했고 지원결정 총액은 49억입니다.
예비 예술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예술대학생의 현장 경험을 돕는 현장 연계지원과 미발표 예비 예술인의 데뷔를 돕는 최초 발표지원 등 2개의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에는 총 110건 125억 원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고 행정 결격을 2건 제외해서 총 108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62페이지부터 사업개요와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전담심의제를 적용했다는 부분이고요. 심의부터 연중 모니터링 평가까지 42인의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전담심의위원 구성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진 위원 비율 50%, 여성위원 비율 50%를 준수해서 심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심의 결과 및 예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결과는 접수된 108건 중에 총 40건을 선정했는데요. 결정 금액은 예산 전액인 49억 원입니다.
예비예술대학에 21건이 선정되어 31억이 배정되었고 예술단체 최초 발표지원에 19건이 선정되어서 18억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수도권 신청 비율 42.7%를 기록했고요. 지역 예비 예술인들의 현장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는데 이번 사업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원 결정 현황과 회피 건에 대해서는 68페이지와 6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기관 누리집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붙임파일 71페이지부터 지원한 곳과 선정된 곳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예술인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예비 예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거라든가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최초 발표에 대한 기회를 주는,

그래서 아직 발표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술인 학교 출신. 대학원 과정까지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대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예비 예술단체에 있는 예비 예술인?

배은주 위원 : 아니요. 단체나 예술인을 포함해서요. 예비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술대학생이요.

배은주 위원 : 대학생들도 저작권도 있고요. 실제로 프로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술인증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진짜 이 사업의 취지대로 순수 예비 예술인, 예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 친구들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지원 이력들이 다 뜨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보니까 예비 예술인들 중에서도 크리에이터나 시각예술, 융복합 쪽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내는 예술인들이 이제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172호 2026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84페이지입니다.
이번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원 결정 건수는 총 65건이고 지원 결정 금액은 16억 1,000만 원입니다. 잔여 예산이 없이 다 배정했고요. 저희가 청년예술도약지원사업은 이어서 85페이지부터 사업개요와 경과 그리고 결과까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에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의 발표 이력이 확인된 예술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망예술인들을 선별하여 집중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 접수 결과 총 1,013건이 들어왔고요. 지원신청 금액으로 보면 232억입니다. 선정률이 6.2%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경쟁률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86페이지부터 전담심의위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7개 분야별로 6인씩 42명의 전담심의위원이 참여하셨습니다.
참고로 예비 예술인도 이분들이 같이 심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심의 결과의 지원 결정 현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고요. 9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결정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총 심의 대상 912건 중에 65건을 선정했고 선정률은 6.4%입니다.
지원 금액은 16억 1,000만 원 전액 지원 했고요. 지역균형지원을 올해는 21.5%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예술가들에게 작년에 비해서 비수도권 예술가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지원 대상자를 총 22건 선정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92페이지부터는 제척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각예술 쪽에서 개인전 2회를 신청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행정 결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결격 건은 97페이지까지 써놓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 내용도 2월 2일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9페이지부터 장르별로 접수된 건수와 선정된 분들을 표시해서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예술도약지원사업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도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해오던 사업이라 다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없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 굉장히 비중이 적은데 지원자가 그렇게 적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문학 같은 경우 작가들의 원고료가 책정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지원신청이 낮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 사례비를 250만 원까지 책정하고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고 발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대행사 같은 것들을 굳이 해야 하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청년 사업의 문학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년에는 원고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문학 부분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 쪽의 지원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심의위원은 작년에도 같은 분들이 하셨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아니요.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만을 위한 전담 심의위원회를 올해 처음 구성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래요? 똑같이 심의를 맡긴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예비예술인사업을 다 모니터링 하시고 그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우수한 사업들은 청년도약까지 연계해서 사다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 심의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평가까지 하셔야 그 결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청년 분야 전담 심의위원을 따로 구성했고 올해부터 시범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하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을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2025년 전담심의위원 제도를 운영했을 때 창작주체에서 청년예술가도약지원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심사의 평가량이 너무 많았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예술가지원 분야를 2026년부터는 독립해서 한 분야를 추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 예술 분야의 전담심의위원들은 예비 예술인 단계 그리고 청년 단계의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사업은 다른데 심의위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따라서 같은 심의위원이 한다는 것들이 공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이미 전담심의위원 명단이나 운영 방향을 공유할 때 공지가 되어 있고요. 사업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류재수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작년에 전담심의에서는 창작주체를 하던 소위 A그룹이라고 지칭하던 A그룹에서 청년예술지원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수요나 여론이 청년들을 특화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의를 밀도 있게 특화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있어서 작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세팅이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을 김진각 위원님께서 조금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논의하고 세팅되어 별도의 트랙으로 왕우리 팀장님이 계신 예술인력양성팀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무용 분야는 사무처와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1~1.5배수로 추천할 때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심의의 경우에는 기성 전문가들도 포함되지만 청년들도 일정 비율의 심의를 맡기자고 해서 저희 무용 분야는 추천할 때 청년그룹들을 심의위원으로 추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은 좋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청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혹시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왕우리 팀장님께 별도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청년 비율이 심사위원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일단 심의위원들 연령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87페이지를 보시면 40대 이하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2인 그리고 시각예술은 40대 이하가 2인, 연극/뮤지컬도 40대 이하 2인, 무용이 40대 이하가 1인인데요. 다른 분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신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88쪽에 전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심사위원 구성도 그렇고 청년예술지원 트랙은 사무처에서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토론회나 포럼을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173호 국제콩쿠르세계연맹 협력사업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소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2억을 확보해 놓았고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이라는 연맹과 2026년도에 신규로 협력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운영계획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관단체 같은 경우 민간경상보조는 모두 공모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관단체 지정 근거에 의해서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과 직접 협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에서 서울지부를 법인으로 설립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진행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단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 산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122개 주요 콩쿠르가 이 연맹에 가입되어 있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쇼팽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유명 콩쿠르들을 관리하고 있는 연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지금 4개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국제음악콩쿠르연맹 하얼빈 총회에 예술위가 참가했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아티스트의 입상이 굉장히 많고 참여가 활발한데 후속 성장 기회 제공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역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Beyond the Stage'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WFIMC와 공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콩쿠르, 클라이번 콩쿠르, 콩쿠르연맹 사무총장, 루체른페스티벌 예술감독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석해서 국내 신진 클래식 분야 예술가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 그리고 포럼 등을 하는 정식 제언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사업을 발전시켜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6년도 올해 WFIMC 70회 총회가 되는데요. 이때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빌뉴스 총회에서 저희 한국 청년예술가들이 콩쿠르 입상 이후에 후속 성장 기회가 필요한 한국 청년 예술가들의 유럽 현지에서의 브랜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은 올해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장소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와 빌뉴스 구시가지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원래 총회에서 열리는 포럼이 국제포럼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서치와 지역 투어 등이 있는데요. 이 포럼 프로그램 안에 저희 코리아세션을 넣어서 한국 예술가들이 주목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행사 주관단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보다는 독보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총회와 연계해서 시범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행사주관단체를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서울지부와 맺고 같이 사업화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서 그것을 공모 사업화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보시면 세계연맹과 협력이라고 사업 명칭을 정했고요. 사업목적은 단순히 입상을 넘어서 유럽 현지 클래식 핵심 네트워크가 되는 총회장에서 한국 아티스트 15인. 15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나 수요를 정해서 조금 변동이 가능하지만 대략 15인 정도를 직접 투입해서 실질적인 연주 기회를 제공해서 매니지먼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세계적 거장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뒤에 자료를 붙여놓았는데 그분들과 1:1 워크숍 또는 마케팅 역량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2월부터 준비를 잘해서 6월까지 준비하고 포럼 때 이후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한국 아티스트들에 대한 커리어 개발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리고요. 한국인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열리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현지 밀착형 네트워킹 그리고 한국 음악가들의 실력을 명사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는 콘서트와 쇼케이스를 중점적으로 기획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WFIMC와 협력해서 전 세계 콩쿠르 감독 및 페스티벌 기획자 대상 쇼케이스를 개최함으로써 현장에서 캐스팅되는 것도 기대하고 있고요. 한국 청년예술가들의 유럽 현지 데뷔를 촉진하고 국제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글로벌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2억이고요. 2억 안에는 한국 아티스트들의 유럽 현지 파견료 그리고 현지 콘서트를 위한 대관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포럼이 열리는 비용 등은 WFIMC가 부담하고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붙임파일에 일자별로 열리는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는데요. 지금 15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개막콘서트를, 저희 아티스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50명 정도의 비슷한, 이런 콩쿠르에서 입상해서 유망한 연주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

의 항공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들이 같이 포럼에 참여해서 네트워킹하게 되는데요. 기조연설로 장한나 지휘자를 섭외하고 있고 음악 콘서트에 '주형기' 지휘자와 비전 스트링 콰르텟과 콩쿠르 입상자로 구성이 될 한국 참가자들이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네트워킹이 첫날 이루어지고 둘째 날에는 여러 가지 관객들이 참여한 포럼 중간 세션에 저희 아티스트들이 같이 토크하고 한국 참가자들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주요 참석자는 지금까지 확정된 분들인데요. 자료로 정리를 해 두었고요. 한국인은 '성시연'지휘자, '주형기'피아니스트 그리고 '장한나'씨가 참여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명사들이 한 번에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리투아니아 국제문학프로젝트센터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리투아니아 문화부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이분들이 행정 협조 총괄로 들어와 있고요. 기획 총괄은 국제콩쿠르연맹 그리고 저희는 파트너로 표기가 되어서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붙임2는 저희가 12월에 공연예술팀에서 진행했던 'Beyond the Stage'에 대한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두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분들과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게 두었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잘 준비를 해서 국내 아티스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시 45분 구문모 위원 회의 참석)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좋은 것은 알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네트워킹을 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꼭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제가 장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장르 얘기를 하자면 소외되어 있는 국악 아티스트들을 조금 더 발굴 개발해서 오히려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마련해 주는 기획이 문예위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충분히 안 되어 있나요?

정병국 위원장 : 잘 아시다시피 한국 클래식계의 뮤지션들이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나와서 우승하는 확률이 17%입니다. 절대적으로 1등입니다. 2등을 하는 국가가 미국, 이태리,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인 것에 비해서 9%. 우리의 2분의 1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외 콩쿠르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의 이후 활동 영역을 보면 임윤찬, 조성진을 빼고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거죠. 한계가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메세나협회에서도 고민했고 "어떻게 세계시장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낼 것이냐?", "그만한 역량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멈추냐?" 그래서 2년 동안 메세나협회와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한 사람을 선발해서 카네디홀에 세우는 작업도 해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초청해서 작년 하얼빈 콩쿠르연

맹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저를 불렀던 것은 “한국이 어떻게 클래식 음악에서 이렇게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 이후에 논의된 것이 “Beyond the Stage 없다.” 그러니까 콩쿠르연맹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했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딱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중국이나 일본같이 콩쿠르에서 우리보다 많이 입상하지 못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활동하는 뮤지션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그 이유를 가서 보니까 대부분 정부든, 정부가 함께해서 기업이든 해서 그런 콩쿠르나 오케스트라 등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하거나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해서 “그런 장을 만들 테니까 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 연말에 거기에서 15인을 한국에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네트워크 장을 마련했고요. 그 뒤에 심도 있게 이후 우리가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뭐가 있겠느냐에 대해 논의한 것이 “이런 것은 어떠냐?”라고 그쪽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쪽과 함께 만들게 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 중심이지만 서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통예술이, 전통예술 하나만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융복합해서 새롭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 거기의 한 스테이지는 그것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왜 그게 가능하느냐 하면,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참여하고 콩쿠르의 대표들도 다 참여하며 루체른을 비롯한 국제적인 음악제의 대표자들도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거기에서 네트워킹하고 올해는 기획을 한 게 뮤지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기획자들도 함께 나가서 연계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장르가 이렇게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데 지금부터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해외에 제가 나가서 느끼는 게 얘기해 보면 한번 왔다가 가면 그다음에 다시 일을 하려면 누구하고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지만 다른 분야도 계속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우연하게 온 기회지만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과 서승미 위원님 말씀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왕우리 팀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도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특정 장르 문제 또는 해외 진출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단계 한국 예술교육의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 작품의 창·제작 지원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정체성과 부합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25년 6월 브니엘예고의 3명의 10대 학생들이 비극적 희생이 있은 이후, 무용계는 굉장히 자정 노력이 있었는데요. 콩쿠르나 강습회, 입시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10대 예술고 학생들의 압박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런 비극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콩쿠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문체부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집중 논의가 되었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문예위에서 기존 무용 분야에 지원하던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도 2026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무용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현 단계의 예술교육에 있어서 과도한 콩쿠르로 인한 불합리한 것. 제가 한예종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장르 불문하고 교수님들이 모이면 콩쿠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어디에서 언론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과도한 콩쿠르식 경쟁, 국내 예술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발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 단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체부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문체위와 교육위원회 협력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교육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현재 4년제 대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콩쿠르나 입시 관련, 지금 감사원 감사가 4년제 대학 그리고 전국 예술고등학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승미 위원님이 전통 분야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쩌다 해피엔딩'이라든가 며칠 전에 서울시립무용단 '일무'는 순수예술의 작품성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승부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문예위가 이런 작품을 위한 원천으로 개인 기량과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기관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현재 예술교육의 흐름이나 목표하고도 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봉착해 있는 엄중한 사항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결한다면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국제콩쿠르연맹이라고 하니까 콩쿠르를 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WFIMC를 보시는데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모든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네스코 지정단체인데요. 인정을 받은 음악 축제가 참가 멤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 4개의 기관. 통영국제음악제와 서울콩쿠르 그리고 관악 제주콩쿠르, 대구콩쿠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콩쿠르의 문제점은 콩쿠르를 통해서 장사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참가비를 받아서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콩쿠르들은 그 이후 후속적으로 콩쿠르에 참여해서 입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단계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으로 입시제도가 잘못되어있고, 그러한 잘못된 성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저는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여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쪽 사람들도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이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Beyond가 안 되는 이유는 콩쿠르에 나와서 입상을 하게 되면 다 된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 논의를 했고요. 몇 차례 세미나 때도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토론도 했고요. 토론을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기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국내 콩쿠르의 문제점은 동의를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미진 위원 : 2억을 들여서 젊은 예술인 15인을 세계 무대에 세워준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업무 파트너는 국제콩쿠르세계연맹의 한국 본부일거라는 말입니다. 예술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한국본부가 검색이 안 돼서 혹시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아까 보고를 했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접 여기와 파트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한국지부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한국지부를 설립하고 있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맞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정병국 위원장 : 진행 중인데요. 등록이 되고 완성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제 기억에는 이것이 2025년도에 문예위 사업설계(안)에 국제콩쿠르 관련된 사업이 저는 없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155쪽 사업 제안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 및 선발계획 중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국제콩쿠르 입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예술적 잠재력, 지원동기, 성별 및 연령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선발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선발기준에서 국제콩쿠르 입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예술 지원 기구에서 할만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병역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콩쿠르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도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최근 기존의 병역특례를 주던 것을 2분의 1로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술 현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콩쿠르. 과도한 경쟁을 부채질하는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 추진하려면 2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각별한 관심과 의지로 추진된다는 인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음악 분야 비상임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추진한다면 저는 2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장과의 공론화 여론 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음악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다른 장르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려면 충분한 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9기 위원이 선정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대다수 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계, 특히 한국의 예술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새로운 제도 설계와 지원 정책을 시작하는 의결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는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차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로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9기든 8기든 예술위원회는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던 일이 100% 바뀌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술위원회가 하는 일이 좋은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좋은 창작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나가서는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적인 문제의 한계를 돌파하는 문이라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콩쿠르가 수단이 돼서 거기에서 멈추고 병역특례나 받고 그러면서 그동안 투자해 놓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예술을 하지 않고 멈추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투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그것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단순하게 국내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병역특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사무처에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사업 설계에 있었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사업 설계 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이후에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12월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이틀 동안 국제세미나를 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 거기에 참여했던 대다수가 긍정적이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음악계 인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10대의 예비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국내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국감에서도 다뤄졌고 감사원 감사도 치루고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거기하고 연결을 시킬 문제는 아니고요.

성기숙 위원 :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전년도에 사업 설계가 없었듯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의지로 출발을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누구의 의견이든 간에, 사무처의 직원이 했든 위원이 했든 위원장이 했든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지금 절차를 밟는 과정이니까 의견을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술계의 여론 수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이런 것을 가지고 표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논의를 조금 더 해 보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그러면 논의를 더 해보자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유망한 아티스트들을 해외로 보내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콩쿠르가 들어오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에도 콩쿠르 입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콩쿠르 입상자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해 주고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볼 시선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선발기준을 정치하게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논란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아르코 지원사업으로 적합하냐?"라는 논의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의견을 조금 더 들은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콩쿠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콩쿠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어떤 예술 장르든 관문은 있어야 됩니다. 관문은 있고 허들은 있어서 예술인마다 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입증할 만한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술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콩쿠르가 없거나 이런 관문 제도가 없으면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겠어요? 그분들이 연주회를 한다거나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티켓팅 파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장단점은 있지만 콩쿠르는 각 장르별로 예술가들에게 들어보면 콩쿠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쿠르에 대한 것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K-콘텐츠 사업에 국가적인 기조도 봐야 된다. 올해 문체부가 7조가량 편성을 했어요. 그중에서 K-컬쳐를 전반적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클래식의 K-컬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굉장히 예술의 판이 바뀌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예술의 힘이 산업적으로 더 많은 국가 예산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출에서 예술 산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수출과 맞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대중예술이나 게임과 맞물려서 이제 클래식도 수출해야 될 시대가 온 거면 오히려 크게 판을 키우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미라 위원 : 저는 이 논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콩쿠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영화에서도 시각예술의 다른 장르에서도 국제적인 상을 받으면 저희가 축하를 해 주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한 국제적인 대회에 나가서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 예술인들에게 네트워킹의 기회를 주는 행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파급력이 좋고 굉장히 지원한 예산금 대비 아주 좋으면 다른 장르도 확대해 보는 것이고 그때 의견을 수렴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 되는 것

이고요. 만약 해 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약점이 많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론을 수렴해 보면 되는 것이고,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은 안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네트워킹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네트워킹 사업이고 메세나협회가 우리하고 후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한 사람을 선발해서 카네기홀에 세운다는 겁니다. 선발된 사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주회를 한번 했지만, 과연 후속적으로 네트워킹의 기회가 있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지만 메세나협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자동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 주면서,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온다. 정말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음악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에 가서 연주회를 하면서 선을 보이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장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레지던시 사업도 하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K아트를 글로벌화 하겠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지난번에 장관 업무보고를 할 때에 각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나?" 사람 숫자로 내보내고 각자 예술인들 800명을 선발해서 KOFICE에서 해외에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각자 내보내서 뭘 하겠다는 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콩쿠르 입상을 우선한다고 하니까 국내 콩쿠르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콩쿠르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을 내보내서 장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맞는 말씀인데요. 다 좋자고 하는 건데 문제는 콩쿠르 입상자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이렇게 해서 만약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콩쿠르에 더 목을 매는 결과를 또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콩쿠르가 바르냐 그르냐가 논의되는 마당에 원치 않게 그것을 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콩쿠르 입상자라고 하지 말고 '유능한 젊은 인재'라고 하든지 '영재'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우면 거기의 상당수는 콩쿠르 입상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콩쿠르에서 떨어진 사람도 들어갈 테니까 콩쿠르 입상자라고 한정된 조건을 바꿔서 해 보시죠.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행사를 한다고 들었을 때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데 그런 걸 왜 해?", "우리 위원회의 사업이랑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고민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사 때도 거기에 오신 선생님들과 즐겁게 네트워킹하지 않고 뚱하게 앉아서 "뭘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컨택 포인트가 세계콩쿠르연맹이라는 것은 약간 저도 걸리기는 하

지만 그냥 음악계의 거대한 네트워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마피아라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음악 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놓치기 어려운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난번 행사에 본인들이 와서 도움이 될 얘기를 들어야 할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아쉬운 점이었고요.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간다는 게 바뀌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바뀐 것은 제목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안 들지만 음악에 있어서 베니스비엔날레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목도 좀 바꾸거나 컨택 포인트도 조금 순화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것을 서승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고, 제가 항상 “왜 미술만 담당팀이 있고 베니스비엔날레도 하고 미술관을 갖고 있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이것을 베니스비엔날레로 만들 수 있다면 괜찮겠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왕우리 팀장님 팀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실은 제가 왕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 “내가 나서서 반대를 해 주겠다.” 왜냐하면 담당팀에서 아무리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고 저도 아직도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3년만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접자는 얘기까지 사담으로 했습니다. 실은 여러 위원님의 우려와 이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우려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작해서 가능성을 좀 보고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말씀하셨다시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사업이 시각예술의 글로벌로 들어가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WFIMC는 클래식 분야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글로벌로 들어가기 위한 플랫폼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면 콩쿠르에서 한국 클래식 연주자들이 수상을 하는데 중국이 추월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콩쿠르 우승을 하지만 뒤에 연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콩쿠르연맹에 소속된 콩쿠르 주체들이 다 아트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축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적인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최근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조금 더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WFIMC에서 얘기하는 것도 화제성이나 뒤에 후속적인 연주 기회를 더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WFIMC와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입상을 하게 되면 국내시장만 가지고도 떼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무대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위원회의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흥분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지금까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만두는 그 시점까지 저에게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 왔던 역할은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야 된다.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기수로 넘겨라. 이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서 의결하고 있어요. 일은 왜 하고 있죠? 우리 위원 스스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규정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정갑영 위원 : 이것은 조정을 해서 하시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곡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시공모사업의 경우 지원 자격에 5년 이상 개최된 실적이 있는 단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콩쿠르세계연맹 한국본부라는 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정시공모에서도 5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국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되 저는 결정하더라도 유연하게 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의 명칭.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콩쿠르세계연맹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주관단체도 국제콩쿠르세계연맹 한국본부입니다. 하나도 실적이 없는 단체가 하고 있고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표, 사업의 주관단체, 신청 자격 그리고 기대효과 등 사업의 기둥과 격까지 모두 새롭게 손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여론 수렴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곡해하지 말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정교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교한 세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기획 사업입니다.

이훈경 위원 : 기획 사업이고 협력 파트너 사업인데 왜 공모사업의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성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명칭도 우리가 만든 명칭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명칭이고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이고요. 여기 연맹 안에 국내 콩쿠르대회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연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정병국 위원장 : 국제콩쿠르연맹은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유네스코 등록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고요. 그러니까 클래식 분야에서 이 창구가 아니면, 그러니까 베니스비엔날레를 말씀하셨듯이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을 할 때도 이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나와서 긍정적이었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이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기숙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저는 반대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이러한 선발기준 등을 대외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성기숙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내신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74호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병주 문화누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자료 16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에서 20세 2개 연령층에 28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예술분야 즉 공연, 전시, 영화 분야 등 온라인에서 관람권 예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전년도 것과 차이가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전년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1인당 국비 10만 원 플러스 지방비 5만 원을 매칭해서 15만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수도권은 같습니다만, 비수도권은 국비 1인당 15만 원 플러스 지방비 5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연, 전시만 지원했다면 금년도에는 영화가 새로 추가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도서가 다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합해서 15만 원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합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사용 분야를 보시면 공연 그리고 전시의 세부적인 사용 장르가 표시되어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진위에서 코드 등록을 한 작품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도서는 2차 발급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허용과 비허용의 구분은 도서 분류 번호를 활용해서 분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맨 밑에 보시면 도서 분야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1인당 2회 그리고 비수도권은 4회까지 제한을 두게 되고요. 도서 같은 경우 하반기에 새로 허용되는데 지원금의 20%로 금액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1인당 3만 원, 비수도권 같은 경우 4만 원을 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회차별 발급 이용 기간은 1회차는 2월 25일부터 발급을 개시해서 6월 30일까지. 그리고 1회차에 발급을 받았더라도 7월 31일까지 사용 내역이 전혀 없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급한 지원금을 회수해서 2회차에 발급하도록 하고요. 2회차 발급은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표에는 각 지자체별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지원금 배정 인원과 지방비를 매칭한 합계 지원금을 표시했습니다.
지원금 예산 배정 내용 외에 전체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특정 기간까지 쓰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작년에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초기 발급률이 79.8%였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전액 미사용자가 거의 발급자의 50% 수준으로 발급을 해 놓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죠.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그래서 그게 불용액에 너무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래서 작년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되었나요?

정병국 위원장 : 안 되었죠.

장미진 위원 :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202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1차년도였고요.

정병국 위원장 : 작년도거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작년도가 시범 사업 2차년도였는데요. 이용률은 전체 합해서 51.3%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진 위원 : 원인 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요?

정병국 위원장 : 저희가 대상자들 간담회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재미가 없다.” 끔찍한 일인데요. 그리고 “순수예술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다.” 이 부분이 제일 커요. 홍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발급을 받은 사람은 74%인데 그중에서 반도 안 써요.

장미진 위원 : 그게 원인이라면 올해는 영화로 다 가버리겠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영화는 횟수를 제한했어요.

장미진 위원 : 다른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게 기재부 국가사업이라서 기재부와 계속 협상하고 “이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순수예술 경험의 폭을 넓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초중학교에 예산을 내려줘서 단체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을 주자.”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장미진 위원 : 서울시의 경우도 청년문화패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은 비교적 쓰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상대적으로 서울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저희와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원 연령층을 바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연령층이 좀 다르고요.

장미진 위원 : 그래도 거기가 잘 되는 이유를 알아야죠.

정병국 위원장 : 잘 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순수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돌리자고 했는지 요지부동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수도권 3만 원, 비수도권 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방비 예산과 매칭으로 이어지는데요.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에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율은 어떻게 나눠지는지와 작년의 경우에서 혹시 지표가 나와 있으면 시도별 이용 현황 비율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매칭은 일률적으로 지자체마다 1인당 5만 원씩 매칭을 하게 되고요. 다만, 국비 지원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용률은 대

부분 수도권 쪽에서 이용률이 50% 정도 나왔고요. 비수도권은 역시나 20~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올해 설계에서는 그런 비율이 반영돼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일률적으로 하게 되나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올해 같은 경우 비수도권을 권장하기 위해서 5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비수도권의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는 영화가 새로 추가되었고 하반기부터 도서가 추가되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는 훨씬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175호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강병주 문화누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활동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43억 원이고요. 카드 사업비 지원금은 문예진흥기금 2,866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1,229억 원으로 70대 30으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19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302만 명이었습니다. 302만 명의 89.4%인 270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고요. 본 사업도 그렇고 아까 설명드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도 국정과제의 시행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 발급 기간은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사용일은 발급일로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금년에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기 13세부터 18세까지 그리고 준고령기인 60세에서 64세까지는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 연령에게는 1인당 16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추가적으로 할 게 있어요?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청소년기와 준고령기에 1만 원씩 추가 지원이 들어간다는 내용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용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중점적 홍보를 하고 우체국 쇼핑몰을 도입해서 사용이 어려운 계층이나 지역의 이용자들에게도 주변 우체국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용 독려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22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자료를 마련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네요. 199쪽을 보면 소외계층 문화 향유권 강화에서 청소년기와 준고령기에는 1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문화의 향유권이라는 것이 연령에 대비해서 증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고요. 청소년기와 준고령기 분들한테 1만 원씩 추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청소년기는 아직 사회생활에 진입하기 전 단계고요.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쭉 운영해 오면서 이 연령대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적 설계는 아닙니다.

성기숙 위원 :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에 1만 원씩 더 해서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군요.

정병국 위원장 :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1176호 2026~203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26페이지입니다.
2026~2030년까지 5개년간 문예기금 중기사업계획(안)을 의결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올해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5,164억 원이고 중기사업계획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7,754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50.2%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매해 평균 22.9%씩 사업비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2027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문예기금 주요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예산 편성 방안은 정부에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집중하는 사업 중심으로 증액하되 그 안에서 저희 기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보고를 드리는 내용들은 중기계획으로서 우선은 해당 사업군에서 전반적인 예산 스케일을 키우는데 중점이 있고요. 실제 이 안에서 디테일한 사업계획은 본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디테일한 것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창작지원에서는 우리 기관의 핵심 사업을 매년 타 분야에 비해서 예산 증가폭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대통령 지시 사항도 있어서 예산 기조를 활용해서 우리 문예기금에 대한 예술창작지원 예산편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기재부 협의를 했고요. 올해는 예술창작지원 규모가 691억 원에 비해서 2027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1,229억 원으로 77.8% 증액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학 장르가 전년 대비 132.2% 증액한 83억 원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같은 경우 실제 지원 사업 예산이 아르코미술관을 제외하고 공모사업 예산만 보면 저희가 11억에서 12억 단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볼륨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2027년도에 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5%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각예술 공모사업인 시각예술창작산실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연예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대해서 현재 대비해서 80억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레퍼토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공연예술창작산실 안에 편성되어 있는 13억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100억 원 신규 사업으로 빼서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창작공간활성화 중에서도 조금 미진했던 문학지원 창작공간 확대를 위해서 현재 대비해서 20억 원을 증액 요구한 내용이고요. 작년까지 48억 원 규모로 했던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원까지 규모가 줄어들어서 전 장르를 지원하지 못하고 시각예술 장르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중앙 연계형 창작생태계 기반조성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200억을 신규 편성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가 도약지원사업 증액으로 59억 원, 예비예술인 현장역량강화를 위해서 4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현재 121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21억 원으로 예산편성 증액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에서는 특이 사항은 없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사항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재작년 결산 국회 과정에서 뉴서울CC에 집행되는 회계가 문예기금회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뉴서울CC의 골프장 운영지출을 예술가치사회확산 안에 편성했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나 문화예술향유지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자료에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120억 원 증액 그리고 운영비는 12억 증액.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지원금 1만 원 증액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액만큼 편성해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의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매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중기사업(안)이잖아요. 안이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문체부와 논의 과정에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매년 1월에 의결 사항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상 위원회 직무에 있는 심의·의결권 안에,

정병국 위원장 :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있고요. 이게 나와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부와 협의를 하고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편성 방침이나 운영계획이나 방향성 같은 것에 더 강조점을 두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올해 이것은 대폭 증액이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순수예술 쪽에 예산을 증액하라고 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문체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준 것이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이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인데요. 실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속 문체부와 협의해서 만든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문모 위원 :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액이고 감액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표를 내밀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했는지 혹은 재배치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얘기하시면 충분히 수용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실행하면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대로 가면서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 조정의 기준 원칙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일단 말씀하신 방향성은 별도로 구두보고는 못 드렸지만 227페이지 네모 박스를 보시면 핵심 정책 키워드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문체부에서 협의하면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핵심 정책 키워드가 일단은 “예산의 스케일을 키우자.” 그리고 “대상을 확대하자.”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자”, “단계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 및 대상 확대에서는 보시다시피 예산을 대규모 지원으로 확대했고요. 단계별 생애주기별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가지원사업에서 오히려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이 예비예술인지원사업보다 지원 예산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예술가가 기성 예술가들과 중복되는 지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가지원과 현재 저희가 창작산실 중심으로 하고있는 기성 예술가들 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다소 예산과목 구조 개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2028년과 2030년은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27년 예산 중심으로 증액을 해놓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를 일괄적으로 증액하는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액은 여기에서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인데요. 227쪽에 핵심 정책 키워드나 분야별 세부 키워드는 적절하게 잘 설정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예진흥기금 5년치가 설계되었는데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고 지난 12월 초에 국회에서 임오경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김재원 의원실 공동주최로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세미나도 있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현 단계 문예진흥기금 확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증액도 할 텐데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저희 예산편성이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일반회계와 다른 복권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을 통해서 전입된 것을 통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문예진흥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행히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떤 증액을 하라고 해서 진행되지만,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계속 쓰게 될 경우,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능동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직접 드렸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 문체부 장관 업무보고 때도 또다시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먼저 장관이 언급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국회하고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정부나 국회에서 함께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 의

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177호 2026년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 기본계획입니다.
본 안건도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36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 기본계획(안) 의결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올해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과 사무처 각 팀의 연구과제 수요 조사를 했고요. 저희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개발을 해 본 결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중장기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두 번째는 미래 어젠다 세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세 번째는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기초조사 등이 나왔습니다. 이 유형을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세팅한 것보다는 위원님들과 사무처 그리고 저희팀에서 발굴된 연구과제를 분류하면서 3가지 방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사업계획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정책연구 결과 합계를 통해서 확산하고 발표 및 참여 정책 네트워크 풀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정책연구 추진체계 및 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수행 프로세스는 작년과 동일한데 지난 1월 중에 정책 연구과제 수요 조사를 수집했고요. 그 결과는 아래에 나와 있는 3가지 유형에 총 8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2월에는 수요 조사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제 정책연구를 수행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다시 한번 2월에 위원님들께 구체화한 과제를 가지고 의결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8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자료로 갈음하되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247쪽까지 해당하는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을 위해서 해외사례 및 동향 조사는 어디를 하는 건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국외 업무 여비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사전에 국가를 정해놓지는 않고 교육 파트와 함께 저희가 전반적인 해외기관 리서치 차원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를 통해서 선발해서 해외 동향 조사를 나가는 내용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혀 구체성이 없으면서 확보해 놓는 방식의 예산 아닌가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필요한데 어디를 조사해야 되겠다.",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해외 조사 및 동향 조사를 위한 국외 업무 추진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학술대회로 1인 곱하기 2인 국외 조사. 국외 조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모호한데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조금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정책연구에서의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연도 중반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벤치마킹이나 동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계획(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안)에 대해서, 8가지 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해 주시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짜서 이것은 건별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건별로 구체적인 게 나온 것은 없는 거죠. 방향만 나온 것이죠.

정갑영 위원 : 예산편성은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대강의 계획은 있는 거죠. 구체성은 없어도 어디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국외 업무 여비로 잡아놓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일반수용비에서도 전문가 자문회의 사례비, 자료 번역비, 조사 사례비라고 잡아놓고 이게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연구 자체연구 추진은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안에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처음부터 주문했던 게 연구 영역이나 범위를 넓히고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여기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 아래에 보면 무슨 번역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3,800만 원에 해외 국외 업무 추진은 2,5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구문모 위원 : 제가 애매모호 했는데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해서 조금 알겠는데요. 사실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면 용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현재의 사업구조라든지 정책에 대한 조정이 어느 부분에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제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다음에 우리가 뭘 건드릴 것이고 무엇을 개선할 것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의 맥을 짚는다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실 겁니다. 내용 안의 금액에 대한 문제는 두 번째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각각의 정책연구

에 있어서 현재 시스템과 정책 방향에서 어디를 건드리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정갑영 위원 :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비용을 조정해서 정책연구 자체 연구 과제를 대폭 늘리시고요. 여기 내부 인력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체연구원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 저희가 2억 5,800만 원 정책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역시도 저희가 단순히 연구용역으로만 나가지 않고 저희 정책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 버전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나열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추산한 것이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업을 채택 받으려고 해야지 총액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할 것은 수정·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건건이 사업을 배정한 다음에 그 사업 배정을 가지고 구체화 시킨 다음에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대충 나열해 두니까 근거 없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저희가 2월에 정책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조금 더 추진계획이 나오면 예산계획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의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연히 의결을 받는 과정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따로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은 계획(안)을 보고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에서 왜 이런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중점을 둬야지 예산을 대충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부실하게 보는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의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계획(안)이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예산(안)까지 올라와야 되느냐는 거죠. 총액만 나오면 되는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구문모 위원 : 전체적인 정책 연구개발에 쓰는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건이 추정하고 포맷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맞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연구용역도 하나의 정책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용역에 매년 아르코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 아이템을 보면 "이 연구를 꼭 해야 하는 건가?"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걸러내고 결정하겠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정책을 어떻게 만들든 환류가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요.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될까?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이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전략소위에서 차년도 연구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돼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절차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과제들이 나오고 전체회의에서 동의 받으면 그다음에 건건이 사업계획을 짜서 별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경영전략소위가 있는데 활용을 왜 안 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작년에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위원님들께도 역시 정책연구 수요를 함께 조사해서 파악해서 올리는 건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경영전략소위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된 다음에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데 건건이 된다, 안 된다고 논의하기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알겠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비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문화예술후원 기업 문화력 지수 큰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좋은 프로젝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의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연구원이 그 연구를 했다고 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적시해서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와 다른 별도의 연구 집단이 하게 되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참 쉽지가 않은 문제기는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자체 연구위원은 4인밖에 없어요. 4인이 다 총괄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연구원들이 다 있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다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계속 팔로업을 해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아닌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실제로 팔로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모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예술생태계 연구조사나 책임성 연구 같은 경우도 다 연구를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기도 하고 해당 팀에 얘기해서,

정병국 위원장 : 협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딱 붙어야 됩니다. 담당 연구위원이 붙어야 합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비상임위원님들도 함께 참여를 해 주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비상임위원님들이 계획(안)을 의결 받는데 이럴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프로세스는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 어떤 연구과제를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잖아요. 의견을 주면 모아진 안을 가지고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에는 이것을 합시다.”라고 결정되어 여기에 올라오면 그것만 의결하면 되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다음에 건건이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하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진각 위원 : 작년에 기업문화력 연구 지수는 기조 팀에서 발주한 연구가 아니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것은 저희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연구용역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기조 팀에서 총괄해서 발주가 나가거나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나간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연구과제는 하여튼 간에 해당 소위가 있으면 해당 소위를 걸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들은 경영전략소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하는 정책연구 말고도 아까 보셨잖아요. 예술후원센터

도 각각 연구와 조사를 하는 명목의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2025년과 2026년에 어떤 조사와 어떤 연구가 전체적으로 되었는지를 위원회에서 취합해야 됩니다. 취합해야 되고요. 이것은 각각의 부서에서 관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선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그냥 정책연구라는 명목의 조사연구가 있기 때문에 2026년도는 일괄 관리를 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정책연구원이 기조 팀에 있는 게 거기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게 해당 소위를 거치면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소위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소위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문예기금 정책성 재교부 사업 운영·관리 주체 변경 보고에 대해서 송시경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249쪽입니다.
보고 안건 제목이 2026년도 문예기금 정책성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운영·관리 주체 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성 재교부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는 251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표에서 보시면 오른쪽 주관기관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예술인복지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체부에서 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성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명명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교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 기관에서 기획하거나 혹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재교부한다는 식으로 명명을 붙인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번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관리 주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50쪽에 보시면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 16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30조에 보면 위원회가 문

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을 보면 별표2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체부에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으로 별표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중기재정사업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1월 31일까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기재정사업을 문체부를 경유해서 기재부에 주면, 기재부는 2월부터 3월까지 중기재정계획(안)을 심의하고 3월 말에 202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실링을 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면서 5월 말까지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고요. 6월부터 9월 2일까지 기재부에서 심의하게 되고 후에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하에 9월 2일부터 국회로 가게 되고 국회가 12월 2일까지 심의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12월 2일에 국회 심의·의결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소위 말해서 예산(안)이 예산으로 확정되는, 문화예술운용기금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거치면 '안'이 떨어지면서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34조에 국회를 거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경상운영비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요청 내용이 252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까지도, 자금을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운용·관리도 지금까지 저희들, 위원회가 해 왔다면 정책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251쪽의 붙임2에 있는 663억 7,700만 원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승인도 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승인도 하고요.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교부하고 정산을 하는 부분. 정산 확정은 문체부가 하겠지만 하라는 얘기가 나왔길래 저희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소관 과장과 사무관 그리고 저와 류재수 본부장이 같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요청하는지 말씀을 들어봤더니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부정사용을 했을 경우 부정수급위원회 그리고 부정수급위원회를 열게 되면 제재부과금과 제재기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체부 소관 과장의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손을 댈 수가 있겠느냐? 법률적 취지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후에 기재부와 협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문예진흥기금으로 넣지 말고 일반회계로 바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거쳐서 가느냐는 말입니다. 괜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처럼 해 놓고, 문예진흥기금을 엄청나게 우리한테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자기들이 다 쓰면서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여기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죠. 복잡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기사업 계획을 보고 할 때 처음으로 아까처럼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663억 7,700만 원의 돈은 일반회계로 하고요. 올해까지는 우리한테 예산 편성이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년 같이 우리가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김미라 위원 :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집행한 것도 아닌데 계속 우리를 통해서 부딪침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의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이 의견은 반드시 문체부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 안건은 202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장다은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은 시각다원예술팀장 : 255페이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 지역에 공공 유휴공간이나 기존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3,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총 8개소 내외 작은미술관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의 경우에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비를 총 사업비의 50%를 매칭해서 전시장으로 조성하고 3년 동안 지원하게 되고요. 전시 활성화의 경우에는 기존 전시장의 전시콘텐츠를 운영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 대비 개선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은행 컬렉션을 저희 미술관에 보급하는 것으로 전시를 2건 정도 진행해 봤는데요. 총 60여 점의 작품을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폭적으로 후원하기로 해서 최대 20개 전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 안건은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 운영 개선 T/F 결과 보고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26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F 진행 경과와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르코창작음악제가 동시대성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고요. 또 매년 공모와 기획 연주회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사업의 기획성이 시대를 따르지 못하고 정체성과 차별성의 한계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관단체가 현재 이 시대에 맞는 기획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창제 T/F를 하기 위한 배경으로 설정되었고요. 그래서 내부 점검 회의와 국악과 양악 라운드테이블. 아창제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6월 20일에 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 상정을 해서 운영 개선T/F가 신설되었고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내외부 전문가. 축제 기획자, 평론가, 작곡가, 연주자 등 다양한 음악실에서 활동하시는 외부 전문가 11인과 비상임위원 2인 그리고 전담심의관 2인, 사무처 2인이 함께 해서 T/F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창작 관현악 축제로 양악 부문으로만 시작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17년간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적으로는 129명의 작곡가와 181곡의 관현악 곡들을 배출했는데요. 사실 이것 자체로는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할 수 있으나 이후 재연이라든가 해외에 이 곡들이 다시 재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유료화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재연 연주회 사업들을 새로 했지만 역시 그것도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음악 안에서 선정되어 작곡되는 음악들이 상당히 아방가르드하고 현대음악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중성을 담보하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단이 예술위 산하 임의단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불분명했고요. 예산 자체도 불안정한 예산 규모와 이러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 절차상으로도 지정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다시 지정 사업으로 계속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주요한 저희의 논의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 방향과 실현 과제로 뽑아낸 지적 사항들을 263페이지에 담아놓았는데요. 심사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추진단장의 심사 참여 제한을 담고 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아까 대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과 편중되지 않는 방식들로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최대 2년까지만 참여하고 그 이상 연속 참여를 하는 부분들은 제한하자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 작곡가의 제출품을 2년 정도까지만 연속 2년은 불가한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들. 그리고 심사 기준안에서 관객 친화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방식들로 개편이 필요하고 대중 친화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의 편성구조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운영 절차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주제성을 담보해서 공모나 공고를 조기화하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도 유연화를 가져가자. 현재 4관 편성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 재연이라든가 연주단체가 재연하는데도,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관으로 폭넓게 편성을 유연화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작곡가, 지휘자에 대한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공모와 기획연주라는 단편적인 2개의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곡가가 연주회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감동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창작 환경들, 과정 중심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 사업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VOC를 상시 수렴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관객과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곡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것들이 바로 다음 연도 사업에 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홍보·관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안이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해외 유통·확산까지도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조직과 관련된 역할들입니다.
지금 추진단 단장님의 역할들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예술 감독제라든가 이러한 방식들로 역할을 분명히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아창제 추진단에 대한 관리·성과지표(PDCA) 단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명확한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매년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들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가 되면 새로운 추진단장님을 위촉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조기로 해서 미리 단장을 선임할 수 있는 것들도 단기적 과제 안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안)을 갖고 2월에 아르코창작음악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를 해서 2026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완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나오기는 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과연 처음부터 다시 왜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음악 생태계 쪽에서 아창제를 계속해야 하는 명분이라든가 “이것을 없애면 안 된다.” 그런 명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나열한 내용을 보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건을 고쳐서 계속하겠다는 뜻인데요.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아창제가 계속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꼭 확보하셔야 할 겁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구문모 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상해”이러면서 시작하고 알아보면서 이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쳐도 해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이 정도라면 잘했건 못했건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했으면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차후에 잘해보자는 것도 물론 가능성의 하나고요. 일단 이것을 받아 주시면 다시 저희가 모여서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왕치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T/F 결과 보고라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결과 보고가 예술계 현장하고 공유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T/F를 운영하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작년에 왕치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창제의 운영 인력의 신분,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고요. 또 아창제 추진단이 사용하는 공간이 문예위 소유의 극장인데 관계성.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냥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답변을 해 주시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일단 죄송하지만, 아창제 T/F에서 운영 되어졌던 예산 자체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문회의 사례비로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예산이었고요. 그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장에 현재 아창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4억이라는 예산이었는데 과거 아창제 추진단이 운영되면서 저희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외부 사무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형식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너무 커서 저희가 지금 대학로예술극장에 있는 유휴공간을 임차하고 그때 사무처장님과 전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을 무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서 사업의 질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창제 추진단은 아르코 산하의 임의 산하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다른 장르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아창제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17년 된 한국창작음악제에 대해서 T/F 결과물을 예술계에 같이 공유해서 현장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17년 이후 지속한다면 어떤 질적 변화, 개선도 같이 현장과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처음에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추진단을 결성해서 뽑았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자들이 그때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정신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점검 없이 계속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나는 우리가 하는 행사니까 참여는 합니다만, 참여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게 등용문이 돼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들이 계속 활용되면 너무 좋겠는데 물어보면 거의 전무한 겁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물음표였는데요. 여기에 심사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창작곡 등용문의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현장에서 음악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라도 없으면 자기들이 등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관현악은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음악에서 5곡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할 때 대중성이 있는 것을 하나 해 보고, 실험적인 것을 하나 해 보고요. 똑같이 다 실험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질리고요. 또 그런 것을 해 봐야 연주를 해 달라고 해도 사람들의 호응이 없으니까 연주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험적인 것을 선정할 때 그런 방향을 놓고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연주회를 갖잖아요. 그러면 연주회에 온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른 데에서 연주가 될 수 있게 메리트를 줘서 이렇게 유도해서 확산시키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맨 처음에 국제콩쿠르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것과 연장선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예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회성이고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안 나와요. 그게 바로 경쟁에서 나온 사람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등용문 차원에서는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쭉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또 이렇게 하면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7년이라고 하면 재 포지셔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대체 불가능성은 확보를 했는가? 이런 정당성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왕치선 위원 : 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단장님께서 7년인가 8년째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팀장님 이하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단장님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반발하거나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신껏 끌어왔는데요. 제 생각에 문제는 단장님은 당신의 시대를 계속 사시는 것 같고요. 세상은 조금 바뀐 것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요. 그 친구들도 제가 보니까 10년 내내 한 팀으로 했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졌고요. 또 하나는 누구도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 본인들이 일을 더 해야 할 당위성도 별로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

다. 설문조사를 해 봤냐고 했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어떤 식의 친구들이 뽑혔는지 분석을 해 봤냐고 하니까 그것도 없고 나이만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많이 바뀌거나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사무처를 바꾸거나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과 담당자들과 저와 서승미 위원님의 교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하거나 정말 안 되면 다시 헤쳐모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이것은 오늘 위원회의 보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존재, 이것을 이렇게 단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부터 향후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한다,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을 잡아서 한다고 명확하게 그쪽에 통보해 놓고 준비를 하시도록 하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창제 관련해서 최근 한예종 음악 캠퍼스에서 뭘 운영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클래식을 하는 구성원조차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창제는 옛날부터 그들만의 리그야” 아창제는 문예위의 사업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문예위 사업이죠.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문예위요. 여기는 추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 주체가 문예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가 주도하는 아창제가 아니라 17년 이후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 재설계를 하려면 1차, 2차, 3차까지 T/F 회의도 하고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폭넓게 현장 여론 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창작음악제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자는 의견인 만큼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 안건은 2026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구문모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소위도 그렇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이견을 개진하고요. 직원들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웹진에 카테고리가 몇 가지 있는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심플

하고 직관적으로 하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기본계획에 보면 후원멤버십, 기부금 용어, 지역매칭지원,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조직 체계 등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후원멤버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부적으로 잘할 것인가? 멤버십이 필요하지만, 멤버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첫 번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매칭지원사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할 것이고요. 지역매칭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문제는 지역재단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실제 이행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은 후원이지만 지역 매칭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도 자체를 고치는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후원 고액 후원 관리시스템 고도화인데요. 고도화 얘기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후원을 누구한테 받았고 어디에 지정 기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조금 더 후원제도나 후원 금액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비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것은 계속 내부적으로 얘기하던, 용역을 하던 해서 정치화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고액 후원 관리시스템 고도화는 3개의 펀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 돈이 어디로 쓰인다는 게 나타나니까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부분에 쓰겠다고 하면 그 사업 명칭을 걸고 펀드를 건건이 하게 되면 “내가 후원한 돈이 어디로 쓰이니까 의미가 있어.” 그렇게 팔로업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예술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구문모 위원 : 예. 보완하면 이 조직 체계에 있어서 정기후원, 고액 후원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내부자금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후원센터에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지금 우리 조직 구성원의 업무분장도 필요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것을 쭉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을 정치화해서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니까 후원은 하는데, 후원자에 대한 예우도 없고요. 그 사람이 왜 후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인지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고도화하자는 것은 멤버십화 해서 카드를 지급해서 그 카드를 갖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공연 등은 얼마를 할인해 준다거나 하는 작업도 하라고 했는데요. 표를 사기 어려운 공연 같은 경우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가 몇 개씩 사전에 확보한 다음에 우리 고액 후원자들끼리만 경쟁해서 선점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국립극장이든 예술의전당이든 MOU를 체결하고 연대해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연계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2026년 2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는 8기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3월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일정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2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41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회의 종료)